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통권 제23호
2009. 2.

의정활동 소식

단양군의회

CONTENTS

3 신년사

4 2008년 의정활동 내용

6 2009년 의정활동 방향

10 2008년 특별위원회 활동

12 2008년 주요안건 처리현황

13 의정특수시책 추진 성과

14 군정질문 · 답변

17 의원논단

19 군민참여마당

21 의정발전위원 기고

23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26 2009년도 의회 운영계획

Focus

2009년 신년사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과 출향 인사 여러분 !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
대망의 기축년(己丑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단양군의회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해를 맞아 군민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 하신 바 두루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미국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로 금년 역시 우리의 경제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고 다함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양군 의회도 지역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단양군 의회는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정에 적정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단양군 의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중점 추진할 것이며,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면서 군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작금(昨今)의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밝은 내일의 단양 ! 희망의 미래 단양 ! 은 결코 기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단양군 의회는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의원이 힘을 모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 드리며,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기축년 새아침에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09년 1월 1일

단양군의회의장 신 태 의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의정 돋보여"

단양군의회는 2008년 한해 『함께하는 의정,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대적 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소기의 의정 성과를 알차게 추진하여 왔다.

2008년도에는 제172회 임시회부터 제182회 정례회까지 90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그밖에 현장방문과 『순회민원상담』, 『민의를 듣는다』, 『재래시장 민심투어』, 『의정모니터제 운영』등 의정특수시책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정에 반영하였으며, 자체의원 연수, 의회 비교 시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방의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단양군의회는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1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총 301대의 농업용 차량에 7,365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도매 물류센터 사업자의 자립의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자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조손가정 아동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급식재료에 친환경 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민의를 듣는다』와 『의정 모니터제』운영, 『재래시장 민심투어』등을 통하여 각종 사회단체 및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군·의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순회민원 상담제』를 운영하여 6명의 의원들이 요일별로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군민들의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민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동참시켜 현장에서 궁금증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노력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총 167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였다.

또한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군정에 접목하고자 노력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된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현안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부 시책 등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농업 경영비용 저감 및 경쟁력 확보 대책 강구 건의문』『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단양 도담삼봉 등 5개소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정 예고 폐지 또는 재검토 촉구 건의문』『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특수(벽지)근무지 지정 관련 건의문』『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건의문』등 총 6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의 생존권을 위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전달하는데 앞장서 노력하였다.

제5대 단양군의회는 전반기를 마치고 신태의 의장과 양수자 부의장을 중심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실시하고 군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고, 국내·외 연수로 견문을 넓히는 한편,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등 "함께하는 의정, 살기좋은 단양" 실현에 노력하여 왔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도약을 향한 기반을 충실히 다진 한해였다.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발한 제5대 단양군의회는 2009년에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의정 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항상 연구하고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의회·민본의회·생활의회 구현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며, 살기 좋은 일류도시로서 행복한 단양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신태의 의장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한해 단양군의회가 아무런 대과(大過)없이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서로 화합하여 수많은 난관을 해쳐 나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보여줄 때라 생각됩니다.

저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올 한해 의정의 목표를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두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회를 방문하고 지역발전을 토론할 수 있는 군민의 사랑방으로 만들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부지런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5대 단양군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걸어 나가야 할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자갈밭을 가는 소라는 석전경우(石田耕牛)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히 군민을 위해 밭을 갈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양군의회라는 소가 곧게 이랑을 내면서 밭을 갈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의원으로...

양수자 부의장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대망의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축년 한해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제5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새해 첫날의 태양은 또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매년 새롭게 다짐을 하지만 저는 군민들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의원이 되고자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군민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년초의 다소 어두운 절망어린 소식들을 희망으로, 희망은 더 좋은 행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지역주민을 보듬어 안고 엄마가 가정을 가꾸고 꾸리듯이 지역의 이곳저곳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 분배에 역점

엄재창 의원

기축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그리고 희망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관광공사설립 문제, 구군부대 부지매입 문제등 커다란 지역적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본의 아니게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오해와 갈등을 빚어 온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토지 매입에서부터 커다란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동전이 양면과 같아 이익을 많이 보는 쪽과 덜보는 쪽은 있게 마련입니다. 의원은 군민여러분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여러분의 대변자인 동시에 군정의 감시자입니다.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한치의 사심이나 당리당략 또는 정치적 권모술수도 없었으며, 오로지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우리 단양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이익 대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보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열차의 재래시장 방문 코스 개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각종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서민과 농민, 소외계층 그리고 중·소 상공인 여러분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비용 지출이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분배에 역점을 둔 견제와 감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

오영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외 경제한파로 경기불황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어렵고 힘든 경제위기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목표로 삼았던 입법활동이 당초 계획했던 만큼 충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기대만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설득입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금년도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군민의 20년 숙원사업인 수중보건설사업이 온 군민의 축복 속에 희망차게 첫 삽을 뜨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준비하였던 지역현안사업과 군민숙원사업들이 그 결실을 맺기 위해 시작하는 뜻 깊고 의미있는 해가 될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단양군 발전의 전기가 될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역할에는 충실하였는지, 되돌아보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초심으로 돌아가 알차게 준비하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민여러분에게 희망주는 의정활동 구현

장영갑 의원

소는 인내와 근면의 상징으로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여 자기 개발이 늦으며 예지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으나, 인내와 투지로 극복하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축년 새해 첫 화두는 희망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유래없는 경기침체 등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소의 인내와 뚝심으로 희망의 기축년 새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제가 큰 힘은 되어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등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일입니다.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분들 삶의 여정에 친근한 벗이자 친구가 되는 일이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책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짧지만 길었던 시간, 허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기축년 새해에는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의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정개선을 위하여...

김영주 의원

군민여러분 새해에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지 어제와 같은데 저물어가는 5대 의회를 돌이켜볼때 의원의 도리를 다하려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왔으나 군민의 기대에 미치치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의회에서 하는 시간외에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일을 하여 왔으나 행정기관과 저희들의 주어진 일과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 의견에 일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는 해가 서산에 질때까지 저에게 주어진 한계를 초월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기관(고정관념)의 이념과 농정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참된 자치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의회는 여러분의 고견을 거울삼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새해에 군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희망찬 미래 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윤수경 의원

2006년 7월 수해로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하는 자력복구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에 자부담을 전가시키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비 부담금에 치중하다보니 자력복구는 자연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구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수해피해 극심지역인 용진·동대지구와 가곡·보발지구에 농촌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의풍지역은 친환경보존지구와 십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에 개발촉진지구사업인 영춘 상리-용진간 교량 및 도로공사에 325억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마치고 대형사업이므로 충청북도에서 기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의 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공사비의 1/3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며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역의 오명을 씻고 단장된 온달관광지 세트장에 KBS 천추태후 촬영장을 추가 신설하고 지속적인 촬영 등을 통해 온달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올해도 10억을 돌파할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리 방터의 화전민촌과 온달산성 복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충청북도,문화재청과 추진하고 있어 지역의 고구려문화권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구인사유물 전시관 공사가 3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건물이 준공되면 전국 수학여행단과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할 것입니다.

단양군에서 1월 눈꽃열차 관광을 필두로 12월까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일부에 그치고 있어 보완해야 될 현안이고 단양군민 모두는 관광안내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낮은 곳, 깊은 곳에서부터 먼저 차오른다'고 합니다. 차오르는 속도를 못 기다리고 위에는 큰 그릇은 왜 안 채우느냐는 아무성도 있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과 단양 관광관리공단이 출범하였으므로 단양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농촌문제 또한 큰 문제입니다. 각종 농업자재가의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현재 농촌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400억여원의 농업예산 중 100억여원이 농민보조금으로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양군 인구의 27%가 농업인이고 이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약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단양군 농촌현실에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지만,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내고 해쳐나가, 희망찬 미래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단양군에서는 이제는 관광과 지역농촌문화 그리고 역사가 함께하는 수준높은 문화관광의 전문도시가 이루어질 때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정상궤도에 올라 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7회에 걸친 활동을 통해 41건의 조례안을 심사 · 의결하였다. 심사 ·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41건 중 23건은 상정된 조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17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다.

2008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주요 조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등과 집행부에 제출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우리 단양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군정을 펼치는데 기본적인 규정이 되는 조례에 대해,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게 적극적인 조례제정 및 수정의결을 통하여 단양의 미래상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나갔으며,
아울러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농촌지역이라는 불리한 교육여건 등 여러가지 힘든 여건을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단양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본연의 대표적인 역할인 입법 활동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는 왕성한 활동을 펼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회에 걸친 활동을 통해 2009년도 단양군 예산에 대한 승인과 2008년도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 그리고 2007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특히, 제182회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단양군의 예산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여 2008년 당초예산대비 367억 6,725만 3천원이 증가한 2,253억 8,479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요구된 총 예산액중 어려운 지방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의회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여 군의회 의원들이 먼저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시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150건 91억 6,161만 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위원회는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절약과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단양군 전체의 발전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주민의 공공이익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는 제180회 임시회에서 모두 283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면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단양하수관거 정비사업등 53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점검을 병행실시하였다.

현지 점검 시에는 특히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현지여건에 맞는 설계 및 시공이 되었는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업장이 미착공이거나, 사업장이 발주만 해 놓고 공사 중지된 사례가 있어 이는 현지여건과 환경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비만 확보한 결과인 만큼, 주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관광개발사업은 사업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공조를 통하여 사업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및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업의 적기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은 예산이 지나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됨으로써 건전재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과정, 정산검사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해소와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회에서는 사업의 명품화를 위한 콘테스트(contest)제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카드제 시행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위활동결과에 대하여는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년 10월 28일)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에 점검결과를 이송, 조치토록 하였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이나 처분전에 적정성과 효과성을 전문적으로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제17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별방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토지매입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다. 별방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매입과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관리계획에 포함(승인)하였으며, 사유임야 매입 승인, 구 군부대 부지 매입,관광종합타운 신축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의 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부결)하였다.

구 군부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매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인근 토지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관리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생략됨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참고로 구 군부대 부지 매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용도지구 변경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 소상공인 및 중소 유통도매 물류센터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제고하고, 대형 유통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관련 물류센터의 열악한 경영환경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실행의 능동적인 대처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친화적인 신 · 재생 청정에너지를 생산 · 이용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활용 ·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로서 공적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니면서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아동 중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내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재료에 친환경 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급식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결의문

- 200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한 정책은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으로 간주하면서 타 자치단체 의회와 공조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시까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함

  -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에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
  - 정부는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우선 유치된 후 규제완화방안은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촉구
  - 정부는 약속한 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방민의 경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건의

- 천연가스는 청정에너지 연료로써 가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권장 확대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로 2006년 12월 제8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단양군은 2016년 이후에 천연가스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음.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9차 천연가스 공급정책 계획에 단양군이 포함되도록 건의

민원순회상담제 운영

- 의회에서는 의원이 지역구를 순회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원순회상담제』를 **100회 운영하여 총 167건의 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군정 및 의정**에 반영하였다.

순회민원상담제 요일별 의원 현황

요일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의원명	김영주	장영갑	엄재창	오영탁	윤수경

『민의를 듣는다』 추진

- 의회에서는 관내 기관 · 단체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의를 듣는다』를 특수시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숙박업중앙회 단양군지부 등 4개 단체와의 회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정발전위원회』 추진

- 2008년 6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 과제의 연구등에 대하여 자문과 지원을 하는 「단양군의회의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재래시장 민심투어』 추진

- 의회에서는 급등하는 고유가와 생필품의 가격인상으로 더욱 어려워진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상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시장경제를 체험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재래시장 민심투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11일 단양시장을 시작으로 실시된 민생현장체험에서 의원들은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하였으며, 시장을 찾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군정질문 · 답변 (제182회 정례회 2008. 11. 28. ~ 12. 3.)

양수자 의원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Q 의료 · 약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진지역에 건물을 매입하여 보건진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약 2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진료실 운영을 위한 추진사항과 군소유인 단양노인병원을 지난해 7월 1일자로 의료법인 제천서울병원으로 민간위탁한 후 점검관리와 위탁이후 운영에 대한 견해는 ?

A 상진진료실은 현재 건물 등 감정평가 완료 후 건물주와 매매계약체결중에 있으며, 단양읍장님과 상진지역발전협의회(상진3리장) 등 관련 대표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 주민들께 홍보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정비와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진료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또한 단양노인요양병원은 기존인력(공보의, 간호사, 간병사, 조리사 등)의 고용승계로 환자나 가족들에게 별 문제 없이 안정된 진료분위기 제공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서별(전기, 소방, 승강기, 집단급식, 감염성 폐기물 등)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례용품과 음식료는 이용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단양군수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금액을 게시토록 하여 부당청구 등 민원발생이 되지 않토록 수시로 확인하고 있음.

위탁 이후 현재까지 전문의료 기관의 위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박은식 보건소장)

엄재창 의원

수자원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Q 상수도 업무 수자원공사 이관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업무 위탁 전 우리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5개항의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권고하여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5개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수공과 협의하여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양해각서 체결 5개 사항에 대한 각 항목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A 지난 2008. 4. 8. 별곡리 비행장 부지(별곡 4단지)의 활용 등 5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에서 각 6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하고 있으나 별곡 4단지 개발을 위한 하천 제척문제가 쟁점이 되어 계속 논의중에 있으며 기타 4개 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논의하기로 하여 별도 진척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내년에도 단양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별곡 4단지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기타 사항은 사업의 액션플랜이 정해지면 시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김동성 군수)

친환경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및 제도적인 장치마련 의향은 ?

오영탁 의원

Q 내년부터 분야별로 지역개발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재생 가능한 목재, 흙 등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통한 택지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강화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정책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여야 할 시급한 우리 지역의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의향은?

A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관계로 아직까지 시행은 미흡함. 그리고, 단양군의 브랜드슬로건을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내년도에는 실천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녹색도시에 맞는 친환경 지역개발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인 단양군환경보전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음.

또한,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바이오메스 순환이용 에너지 자립형녹색마을 조성, 매포생태공원 조성사업,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하괴리 가로수길 조성사업,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친환경기업육성 등을 통한 환경과 사람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음.

(김동성 군수)

고수동굴 개발계획 및 모노레일 추진계획은?

장영갑 의원

Q 군수님께서는 공약하신 고수동굴 개발 및 동굴전시관 건립 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A 고수동굴은 단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임에도 무질서한 상가 난립으로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협소한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지역임.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 각종 규제로 별다른 개발이 어려운 가운데 2003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취소되어 개발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인근에 모노레일 승 · 하차장이 건립되고 나면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개발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음.

그리고, 동굴전시관 건립사업은 47백만원을 들여 (사)한국동굴연구소에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로 12월경 용역 완료되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타당성 여부에 따라 문화재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끝으로,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기존에 개설 되어 있는 임도와 예전에 이미 훼손되었던 탄광부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노선으로 선정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재협의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임.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자와 의견조율이 완료 되는대로 제안을 받아 MOU를 체결하여 사업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김동성 군수)

김영주 의원

공약사업과 관련한 대체사업 및 마늘 출하촉진대회 개최 의향은?

Q 민선4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단양마늘 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 2007년 제171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서 마늘가공공장시설대신 어상천면 지역에 10억원 한도 내에서 대체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09년도 적정 마늘수매가 형성을 위해서 "마늘출하촉진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A 마늘 가공공장이 어상천면 지역에서 매포읍으로 이전 건립되면서 어상천면 지역에는 어상천 수박을 이용한 공동선별 및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생산자 단체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마늘출하촉진대회를 개최하여 마늘 값이 형성된 후 수매하는 것도 재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연합사업단의 수매 마늘에 대한 판매 결과 분석 및 마늘 재배 농민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김동성 군수)

윤수경 의원

고구려 민속촌 건립사업 추진은?

Q 단양 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에 의하여 고시된 이후 고구려 민속촌 건립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계획은?

A 고구려 민속촌 사업은 2003. 10. 23. 이후 4차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끝에 환경성 검토서 작성자는 단양군이지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광지 지정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환경청장과 협의 중에 있었으나, 현장 검증시 과업구간 제방이 선 시공되어 사전 환경성 검토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 그 위치에 고구려 민속촌 사업 추진시 행 · 재정적인 손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으로 고구려 민속촌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업성 재검토 후 추진하겠음.

(김동성 군수)

작지만 아름다운 약속의 땅, 단양

엄재창 의원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슈마허는 1973년에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저서에서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장지상주의는 맹목적인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경제구조를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위 '중간기술' 즉 '작은 것'을 강조했다.

요즘 세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란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성장전략을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설정했다. 이제 슈마허의 말처럼 성장을 위한 경제보다 인간과 환경을 위한 경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우리 단양군은 작은 면적에 8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또한 3만 명을 갓 넘는 작은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환경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없는 게 없다. 군단위에서 보기 드물게 50미터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에서부터 클레이 사격장,파3골프 연습장,볼링장,눈썰매장,패러글라이딩장,경비행기연습장,레프팅장,유황온천,아쿠아월드를 갖춘 콘도와 골프장 거기에 소백산과 남한강을 낀 천혜의 관광자원인 단양팔경과 충주호,금수산,도락산,황정산 등 명산과 고수동굴을 비롯한 4대 동굴에 수양개 및 구낭굴 선사유적지 등 무엇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아마도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 중 군 단위로선 이만한 성장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춘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도 드물 것이다.

오직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관내에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며 산재해 있는 석회석 광산과 각종 산업폐기물을 태우면서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시멘트 생산 공장이 3개라는 것이 흠이라면 흠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지라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려면 과연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금년에는 신소재지방산업단지조성, 매포친환경농공단지 2단계 사업과 도담지구 개발, 별곡4단지 개발, 뉴 타운 조성, 수중보 건설, 양백산 모노레일 설치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생각한다면 인간중심의 개발보다 성장 중심의 개발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겠으나,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몫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범세계적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라갈 수 없으며 이는 또 다른 저개발과 낙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던져졌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성장위주의 개발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인간과 환경을 염두에 두어두고 개발을 하느냐? 일 것이다. 답은 간단하고도 명료하지만 그 실천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우리군의 브랜드 슬로건 '대한민국 녹색쉼표' 답게 '함께 만드는 행복한 단양' 이 진정으로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약속의 땅, 단양' 이 되도록 3만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

단양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고구려의 숨결...

윤수경 의원

올해부터 각 신문의 칼럼, 사설,논단에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폐지와 중선거구제의 폐단에 대하여 시행 3년차에 문제가 불거지고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0여명이 모인 가운데서 이명박 대통령에까지 건의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

행정구역안에서 선거구안에서 의원과 의원간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3만 4천의 인구를 이리저리 쪼개야하니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보완되어야될 현안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 논의되다가 촛불에 묻혀버렸다.

현재 모든 정책이 인구중심으로 이루어진대 대하여는 개선되어야된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프랑스의 경우(지방자치행정 연수원자료)를 총 36,782개 시·읍·면 중 3백명이하 시읍면은 15,184개로 41.3% 1천명이하의 시읍면은 1천명~5만명 8,939개소로 24.3% 5만~30만명 120개소로 0.4%에 해당된다.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어야만 지역의 화합이나 의원의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가 있다. 중선거구제의 폐단은 대도시의 의원집중현상이 우리지역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가. 의원의 윤리강령보다 의원의 자신도 되돌아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지역은 역사와 문화 관광과 소득이 함께 창출되어야 한다. 관광도 한탕주의는 안된다. 박리다매 형식으로 가야한다. 우리지역은 고구려문화권이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중원문화권에 편입되면서 우리군의 고유상징인 고구려는 없어지고 중원으로 바뀌었다.

중원은 삼국시대부터 충주를 의미했다.

중원문화권의 권역별 개발구상은 단양은 선사유적, 산수관광, 충주·제천은 삼국문화민속촌, 전통문화체험, 수변위락관광, 음성·진천은 종교문화, 통일역사문화관광, 청주·청원은 인쇄공예, 근대사 국제첨단위락관광, 괴산·보은은 산악휴양, 교육문화관광, 옥천·영동은 전통음악, 자연생태 관광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는 도중 고구련문화권의 고구려민속촌은 사라지고 충주의 중원문화권의 신라,고구려,백제의 3국 민속촌이 건립되고 삼국시대를 뛰어넘어 조선시대의 과거길인 죽령길로 바뀌었다.

우리는 고구려문화권이던 중원문화권이던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절대로 상실하여서는 안된다.

우리군이 주춤하는 사이에 고구려민속촌이 타지역으로 흡수될 위기에 있다. 우리의 것을 누군가 지켜주길 바랄순 없다. 내가 앞장서서 지켜야하고 또 지켜내어야 한다.

충주에 삼국문화민속촌을 중원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구리시에서는 고구려시도 만든다고 하고 또한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으로 고구려관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광진구에서는 아차산성에서 온달이 전사했다는 설을 들고 나오고 구체화하기 위해 아차산성을 수회 지표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내 것에 대한 홍보나 관리에 전담하는 기구나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또한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소수의 편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을 펼쳐 주시길...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매포지회장 최 월 선

2007년 4월 단양군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도지사도 뽑고, 군수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군의원도 뽑는 선거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뽑다보니 도지사나 군수 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게 투표를 했고, 사실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회의도 참석하고 의장실에서 의원들과 담화도 나누면서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대신해서 많은 일을 해 오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하지만 특히 여성의 권익보호와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시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과 노약자, 결혼이주여성들도 단양군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똑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편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보듬어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여성과 사회적 소수, 약자들이 단양군민으로서의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밝고 행복한 사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희망이다."

의정발전위원 김종태

작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는 연일 메스컴을 통해 우울한 소식만을 접하면서 기축년 새해는 희망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대동한 채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려울 때일수록 군민은 지도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가 보다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고 군민의 대변자이자 군정의 중심축인 단양군 의회에 나는 희망을 건다.

단양군 예산 2천억 시대를 맞아 예산심의권과 조례제정권 감사와 조사권을 위임받은 신태의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함께하며 우리는 흔히 의회와 행정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보다 긴밀한 관계가 요구 되겠지만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외발 수레처럼 위태로울 것이고 간격이 너무 멀면 비효율적이고 한바퀴가 크고 한쪽이 작다면 수레는 뒤뚱거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군민은 의정과 행정 모두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위기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며 군의회가 주축이 되어 군민에게 보다 큰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

서민과 소외된 계층 지나쳐보면 잘 보이지 않을 구석진 곳까지 살펴주는 포근하고 따뜻한 의회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기초의회가 될 때 군민 또한 전국에서 가장 행복해질것이다.

의원모든 분들이 처음 의회에 등극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말고 저울의 중심 점을 지향하는 성숙한 단양군의회를 기대하며 군민과 함께 생각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의 알권리에 보다 적극적일때 군민 또한 의회에 무한 신뢰를 보내며 더불어 풍요로운 단양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단양군 의회 의원님의 건승과 단양군 의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의원님들이시여!

상지대학교 교수 임 상 철
(단양군혁신협의회의장)

정치에 문외한인 자에게 의정활동에 귀띔이 될 글을 써 달라는 의회사무과의 부탁을 받고선 한참을 망설였다. 가장 먼저 의회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 메인화면에 쓰여진 다음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늘 군민 여러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군민의 참뜻을 올바로 대변하려면 현장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발품을 팔고 귀동냥을 많이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프고 가려운데는 없는지를 진단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른 처방을 구상하여야 한다. 열린마음으로 군민만을 생각하려면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며 직분에 철저하여야 한다.

8명의 개인 보좌인력과 12명의 공무원이 배정되어 업무지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단 한명의 개인 보좌인력도 없는 현실에서 막중한 의정활동을 옹골차게 수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단기필마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 의원의 처지에서는 의원 모두의 팀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분과 전체를 양립시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욕만을 앞세워 선거구 지역주민만을 위한 대리인 역할에 치중하여 단양군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행정집행기관과 의회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새의 양 날개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두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황금분활이 될 때 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집행기관에 대한 창조적 감시와 합리적 비판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지역간 갈등도 해소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단체장의 독선과 자의적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순기능은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적 집행을 독려하는 재정민주주의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감시와 견제만을 강조하다보면 의욕적으로 일하는 지자체단체장의 추진의욕을 무디게 하거나 행정의 공백과 마비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며 역기능은 최소화시키는 냉철한 머리와 따듯한 가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토론회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이슈와 과제에 대한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상대를 모심에 있어서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며(待人春風) 자신을 지킴에 있어서는 가을 서리와 같이 엄하게(持己秋霜)하라는 말이 있다. 단양군의회는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는 의원, 전문지식을 습득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의 역군으로서 단양군 역사에 길이 빛나길 바란다.

거울의 잠에서 깨어난 물고기

방 병 철
(충청일보 단양주재기자)

마른 빵처럼 딱딱해진 딱딱해져 버린
검은 망치로 차가운 시간을 내리치며

강태공은 거울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강태공은 거울 속에서 물고기를 놓고

마셔버린 거울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지워버릴까
바다에서 바다를 낳으려고 몸을 풀고 있는 파도

나는 푸른 거울을 응시한다, 고요한 표면
나는 그 거울을 들어 마신다
몸 속으로 푸르게 흐르는 거울들이 소리친다

거울 속에는 물고기가 살고, 물 속에는
거울 속에는 사람들이 살고, 물 속에는

공룡처럼 멸종하기 위해서는 퇴화하는 길밖에 없다

황제 시대에는 거울 속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지금처럼 단절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성질과 색, 그리고 형태가 서로 다양한 작은 통로들이 있었다. 거울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평화를 지키며 거울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의 사람들이 인간들을 공격해 왔다. 그들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전투 끝에, 인간은 황제의 신비한 능력에 힘입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황제는 침략자들을 몰아내어 거울 속에 가두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의 행위를 똑같이 따라서 하라고 명령하였다. 즉 그들의 힘을 빼앗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 본연의 형상까지도 빼앗아, 인간과 사물에 종속된 단순한 그림자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이 신비한 동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은 바로 그 물고기이다. 거울 깊숙한 곳에서 선이 보일 것이고 그 선의 색깔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점점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 행동을 흉내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리벽을, 혹은 금속으로 만든 벽을 깨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리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거울 속의 사람들과 물 속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인간에게 대항할 것이다.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의원간담회 ▲

민의를 듣는다 ▲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 ▲

2008년 하반기 의정연수 ▲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통영관광개발공사 방문 ▲

단양수도서비스센터 개소식 ▲

의정발전위원회 ▲

의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 ▲

의정활동 현장스케치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2009년도 의회 운영계획

월 별	구 분	주 요 안 건 (예상)
2월	임시회	•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타 부의안건
3월	임시회	•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5월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기타 부의안건
6월	정례회 (6. 16. ~ 6. 30.)	•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08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승인 • 기타 부의안건
7월	임시회	•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8월	임시회	•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9월	임시회	• 기타 부의안건
10월	임시회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실시
11월	임시회	•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2월	정례회 (11.27. ~ 12. 21.)	• 2010년도 당초예산안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009년 정기추경안 • 기타 부의안건

단양군의회 의원 연락처

직 책	성 명	성 명			
		자 택	FAX	핸드폰	E-mail
의 장	신 태 의	422-7090	422-5505	011-9845-7090	tusin56@hanmail.net
부의장	양 수 자	422-0661	421-0661	010-8908-3415	iris-ysj@hanmail.net
의 원	엄 재 창	422-2005	421-8597	010-8845-8597	jecum@hanmail.net
의 원	오 영 탁	423-3883	421-3883	016-9661-7770	oytak501@hanmail.net
의 원	장 영 갑	422-2126	423-2126	011-492-0056	ygi0056@hanmail.net
의 원	김 영 주	423-6289	421-6289	011-212-6289	yungju6289@hanmail.net
의 원	윤 수 경	423-7484	423-7485	011-487-4935	skhj4952@hanmail.net

www.dycc.net

군민 여러분을 위해
단양군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소식, 회의록 검색,
참여마당을 통하여 자료 조회 및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좋은 글 남겨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 www.dycc.net

의정활동 소식 (통권 제23호)

| 인 쇄 : 2009년 2월 일
| 발 행 : 2009년 2월 일
| 발행처 : 단양군의회
| 편 집 : 단양군의회사무과
| 주 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벌곡리 300번지
| 전 화 : (043) 420-3504
| 팩 스 : (043) 422-9502

〈비매품〉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곳 단양 !

지난 1년 동안 군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양군의회
www.dycc.net